

“전국시도교육청 고졸 채용 2%에 그쳐”

안민석 의원, 2014년 10월 정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에도 불구 고졸 채용 미흡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고졸자 비율은 1위지만 취업률은 최하위권으로 고졸 채용을 늘리자는 주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조차 고졸 채용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시도교육청의 고졸 채용은 평균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고졸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7%, 2013년 1.9%, 2014년 1.5%, 2015년 2%로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 차이는 미미했다. 교육부는 2014년 10월에 고졸 취업 확산 및 능력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15개 관련 부처 공동

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에서 우선하여 고졸 직함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졸자 공무원 채용 확대에 노력한다고 했으나 그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구의 경우 2014년, 2015년 2년 연속 단 한 명의 고졸자도 채용하지 않았고, 2015년 연 부산, 대구, 인천의 고졸자 채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제주는

14.3%를 채용하며 전국 평균 12배 이상을 넘었고 서울은 4.4%를 채용하며 전국 평균 2배 이상 채용을 했다. 반면, 광주와 대전은 단, 1.4%를 채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대졸자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고졸자 청년실업은 최악이다”라며 “교육 당국부터 고졸 채용을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섭 기자 wbs@



교육수요자 신뢰 높이는 시간

인천공항공중, 학부모 공개수업 실시

인천공항공중학교(교장 우원식)는 지난 9월 22일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해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에 참관할 기회를 마련했다. 1년에 2번 열리는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점에서 교육수요자의 중점을 해소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공개수업에는 많은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연수와 공개수업 참관의 기회를 가져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살펴보았다. 학부모 연수는 한국지체사회교육협의회 원원숙 수석 강사가 강사로 나서서 ‘내 아이의 분노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강연해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4교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공개가 이뤄져 학부모들은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참관했고, 참관한 수업에 대해 참관표를 작성해 수업 담당 교사에게 소감을 전해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수업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학생들은 부모님 앞에서 평소보다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등 수업에 열의를 보였다. 우원식 교장은 “이번 학부모 공개수업의 날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인원섭 기자 as@

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받는다

고용부·병무청, 잔여복무 6개월 미만 고졸이하 4000명 대상

소집례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정부 부처간 3.0 협업을 통해 소집례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연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집례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약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즉시 발급하는 등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직업능력개발과(내일배움센터)를 방문접수된다.

훈련수강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근무시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집 해제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실시 후 훈련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지속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술품 감상 정말 재미있네요”

인천해원중 ‘찾아가는 갤러리-신인상파전’ 전시

인천해원중학교(교장 김영근)는 8월 29일~9월 8일에 걸쳐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연계해 ‘찾아가는 갤러리-신인상파전’을 전시했다.

평소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던 인천해원중은 방학 중 과제와 연계해 미술적 소양을 기르고 미술적 감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찾아가는 갤러리’를 기획해 조로주 피터와 최의와 폴 시냐를 비롯한 신인상파 그림 24점을 전시했으며 특히 방학 과제 제출자 중 선별된 학생들을 명에 도슨트로 선발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 2016학년도 2연된 시행된 자유학기

제 주제선택활동 중 ‘인문학으로 푸는 과학’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학생은 “미술품 감상이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이따기를 듣는 것처럼 재미있는 활동이라고 인식을 전환하게 됐으며, 과학과 연계된 미술 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도슨트로 선발돼 활동한 한 학생은 “이번 활동을 하며 자료를 조사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으며 자신의 설명을 듣고 미술에 관심을 끌게 된 다른 학생들을 보며 미치고 기쁘고 보람된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인원섭 기자 as@

문화재청, KT&G와 경주 문화재 조기복구 협력

문화재청은 KT&G,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22일 경북 경주시 소재 서악사원에서 지진 피해 문화재 복구 지원 등 문화재보호를 위한 ‘문화재지킴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문화재청과 KT&G,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지진피해 지역의 문화재 복구를 위한 지원과 문화재 보호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KT&G는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주 지역의 문화재와 고도 경관 관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금으로 모금해 5억원을 후원하고, 임직원이 문화재 보호와 환경정화 등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주 지역 내 한옥 피해는 지붕과 담장 등 기와 파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손된 기와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대상이다.

문화재청은 긴급 복구 가능할 수 있도록 KT&G에서 후원하는 5억원으로 기와를 구입 지원할 예정이다. 황남동, 인왕동, 사정동 등 경주 지역 내 약 1200여채 이상의 피해 한옥을 복구하는데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KT&G와의 협약이 문화재 안전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문화재지킴이 민간협력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를 본 문화재의 신속한 복구 등과 함께 앞으로 문화재 안전관리에 2020년 전연된 시행된 자유학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북시대 개막

공무원 교육의 중추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이 충북시대를 열었다.

국가인재원은 26일 충북 진천군 신청사로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재원 신청사는 대지 13만 300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교육·업무시설과 대강당, 휴식시설, 기숙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기연체자 상환능력 없으면 빚 최대 90% 탕감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연간 23만명 혜택 기대

채무부담 경감을 도와주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일반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빚의 최대 90%를 탕감해줄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서 상환이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지원이 2016년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보호 확대회의’를 개최해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강화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기 위해 중도탈락자라도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차를 납입하면 약정이 재계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살 때 기기 분할납부 기금이 지원된다는 사정을 고려해 기초수급자 등 일부 취약층에 한해 서를 보증보험이 휴대전화 기동에 필요한 보증서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채무가 가장 잘라 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 금융 분야”라며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이룬 시점에서 덜어줄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간 최대 23만 3000명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족, 이색민, 장애인 양양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자선형성 지원금(예: 일정금액 저축시 실업급여 연 8%)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성실상환자(24개월 이상 상환) 소액 신용카드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지원 조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불기회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채무를 면제해준다.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계 요건을 연체금액의 1/3 일시상환으로 분할상환금 1회차로 납입을 완화해준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의 재계 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 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는 소득정보 등을 활용(채무자 등의 전제)하여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할 경우 최대 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시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예: 최대 30%)이 적용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적용 연체가 발생해 신용 회복 노력이 들거됨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

한 뒤 금융위는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되도록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연대 책임’ 차원에서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추심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등쪽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 도입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임대 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해갈 수 없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중 채무 독촉 횟수 시 하루 3회 이내에서 하루 2회로 제한된다.

채무자들이 본인 채권이 언제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내년 4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역시 대출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담동 도심형 품격주택
아파트도시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국민생활서비스 제공

청담동의 대박!

년중불패상권
年中不敗上權

국내 유일의 최고급 빌라단지 정중앙!
최고의 입지! 파격적 조건! 합리적 가격!
모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유치원
입학

SAT
시험
입학

어학원
입학

SOP
시험
입학

국가대표
상권

청담대표상권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 02) 540-1160